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설교 준비 자료: 요한복음 9장

설교 유형 및 톤 가이드

- **유형**: 주일오전
- **핵심 톤**: 서사적·선포적
- **청중 상황**: 장년부 대상, 요한복음 본문 설교
- **예화 방향**: 법정 드라마적 서사 구조를 활용한 전개, 고통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 **이 자료 활용 시 주의**: 요9장 전체가 하나의 서사이므로 단락별 흐름(치유→심문→추방→경배)을 살려 설교 구조에 반영

이전 설교 이력

해당 없음 (샘플 자료)

1. 본문 및 원어 분석

그리스어 원문 (NA28)

1 Καὶ παράγων εἶδεν ἄνθρωπον τυφλὸν ἐκ γενετῆς. 2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λέγοντες· ῥαββί, τίς ἥμαρτεν, οὗτος ἢ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ἵνα τυφλὸς γεννηθῇ; 3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οὔτε οὗτος ἥμαρτεν οὔτε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ῇ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ἐν αὐτῷ. 4 ἡμᾶς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ἕως ἡμέρα ἐστίν· ἔρχεται νὺξ ὅτε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ργάζεσθαι. 5 ὅταν ἐν τῷ κόσμῳ ὦ, φῶς εἰμι τοῦ κόσμου. 6 ταῦτα εἰπὼν ἔπτυσεν χαμαὶ καὶ ἐποίησεν πηλὸν ἐκ τοῦ πτύσματος καὶ ἐπέχρισεν αὐτοῦ τὸν πηλὸν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7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ὕπαγε νίψαι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τοῦ Σιλωάμ (ὃ ἑρμηνεύεται ἀπεσταλμένος). ἀπῆλθεν οὖν καὶ ἐνίψατο καὶ ἦλθεν βλέπων.

8 Οἱ οὖν γείτονες καὶ οἱ θεωροῦντες αὐτὸν τὸ πρότερον ὅτι προσαίτης ἦν ἔλεγον·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καθήμενος καὶ προσαιτῶν; 9 ἄλλοι ἔλεγον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ἄλλοι ἔλεγον· οὐχί, ἀλλὰ ὅμοιος αὐτῷ ἐστιν. ἐκεῖνος ἔλεγεν ὅτι ἐγώ εἰμι. 10 ἔλεγον οὖν αὐτῷ· πῶς [οὖν] ἠνεῴχθησάν σου οἱ ὀφθαλμοί; 11 ἀπεκρίθη ἐκεῖνος· ὁ ἄνθρωπος ὁ λεγόμενος Ἰησοῦς πηλὸν ἐποίησεν καὶ ἐπέχρισέν μ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καὶ εἶπέν μοι ὅτι ὕπαγε εἰς τὸν Σιλωὰμ καὶ νίψαι· ἀπελθὼν οὖν καὶ νιψάμενος ἀνέβλεψα. 12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ποῦ ἐστιν ἐκεῖνος; λέγει· οὐκ οἶδα.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13 Ἄγουσιν αὐτὸν πρὸς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τόν ποτε τυφλόν. 14 ἦν δὲ σάββατον ἐν ᾗ ἡμέρᾳ τὸν πηλὸν ἐποίησε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ἀνέῳξεν αὐτοῦ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15 πάλιν οὖν ἠρώτων αὐτὸν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πῶς ἀνέβλεψεν.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πηλὸν ἐπέθηκέν μου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καὶ ἐνιψάμην καὶ βλέπω. 16 ἔλεγον οὖ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τινές· οὐκ ἔστιν οὗτος παρὰ θεοῦ ὁ ἄνθρωπος, ὅτι τὸ σάββατον οὐ τηρεῖ.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τοιαῦτα σημεῖα ποιεῖν; καὶ σχίσμα ἦν ἐν αὐτοῖς. 17 λέγουσιν οὖν τῷ τυφλῷ πάλιν· τί σὺ λέγεις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ἠνέῳ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ὁ δὲ εἶπεν ὅτι προφήτης ἐστίν.

18 Οὐκ ἐπίστευσ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ἦν τυφλὸς καὶ ἀνέβλεψεν, ἕως ὅτου ἐφώνησαν τοὺς γονεῖς αὐτοῦ τοῦ ἀναβλέψαντος 19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οὺς λέγοντες·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ὑμῶν, ὃν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τυφλὸς ἐγεννήθη; πῶς οὖν βλέπει ἄρτι; 20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καὶ εἶπαν· οἴδαμεν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ἡμῶν καὶ ὅτι τυφλὸς ἐγεννήθη· 21 πῶς δὲ νῦν βλέπει οὐκ οἴδαμεν, ἢ τίς ἤνοιξεν αὐτοῦ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ἡμεῖς οὐκ οἴδαμεν· αὐτὸν ἐρωτήσατε, ἡλικίαν ἔχει, αὐτὸς περὶ ἑαυτοῦ λαλήσει. 22 ταῦτα εἶπαν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ὅτι ἐφοβοῦντο τοὺς Ἰουδαίους· ἤδη γὰρ συνετέθειντο οἱ Ἰουδαῖοι ἵνα ἐάν τις αὐτὸν ὁμολογήσῃ Χριστόν, ἀποσυνάγωγος γένηται. 23 διὰ τοῦτο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εἶπαν ὅτι ἡλικίαν ἔχει, αὐτὸν ἐπερωτήσατε.

24 Ἐφώνησαν οὖν τὸν ἄνθρωπον ἐκ δευτέρου ὃς ἦν τυφλὸς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δὸς δόξαν τῷ θεῷ·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ός ἐστιν. 25 ἀπεκρίθη οὖν ἐκεῖνος· εἰ ἁμαρτωλός ἐστιν οὐκ οἶδα· ἓν οἶδα, ὅτι τυφλὸς ὢν ἄρτι βλέπω. 26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τί ἐποίησέν σοι; πῶς ἤνοι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27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εἶπον ὑμῖν ἤδη καὶ οὐκ ἠκούσατε· τί πάλιν θέλετε ἀκούειν; μὴ καὶ ὑμεῖς θέλετε αὐτοῦ μαθηταὶ γενέσθαι; 28 καὶ ἐλοιδόρησαν αὐτὸν καὶ εἶπαν· σὺ μαθητὴς εἶ ἐκείνου, ἡμεῖς δὲ τοῦ Μωϋσέως ἐσμὲν μαθηταί· 29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ὅτι Μωϋσεῖ λελάληκεν ὁ θεός, τοῦτον δὲ οὐκ οἴδαμεν πόθεν ἐστίν. 30 ἀπεκρίθη ὁ ἄνθρωπ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ἐν τούτῳ γὰρ τὸ θαυμαστόν ἐστιν, ὅτι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πόθεν ἐστίν, καὶ ἤνοιξέν μ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31 οἴδαμεν ὅτι ἁμαρτωλῶν ὁ θεὸς οὐκ ἀκούει, ἀλλ' ἐάν τις θεοσεβὴς ᾖ καὶ τὸ θέλημα αὐτοῦ ποιῇ τούτου ἀκούει. 32 ἐκ τοῦ αἰῶνος οὐκ ἠκούσθη ὅτι ἠνέῳξέν τις ὀφθαλμοὺς τυφλοῦ γεγεννημένου· 33 εἰ μὴ ἦν οὗτος παρὰ θεοῦ, οὐκ ἠδύνατο ποιεῖν οὐδέν. 34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ἐν ἁμαρτίαις σὺ ἐγεννήθης ὅλος καὶ σὺ διδάσκεις ἡμᾶς; καὶ ἐξέβαλον αὐτὸν ἔξω.

35 Ἤκουσεν Ἰησοῦς ὅτι ἐξέβαλον αὐτὸν ἔξω καὶ εὑρὼν αὐτὸν εἶπεν· σὺ πιστεύεις εἰς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36 ἀπεκρίθη ἐκεῖνος καὶ εἶπεν· καὶ τίς ἐστιν, κύριε, ἵνα πιστεύσω εἰς αὐτόν; 37 εἶπεν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ἑώρακας αὐτὸν καὶ ὁ λαλῶν μετὰ σοῦ ἐκεῖνός ἐστιν. 38 ὁ δὲ ἔφη· πιστεύω, κύριε· καὶ προσεκύνησεν αὐτῷ. 39 καὶ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εἰς κρίμα ἐγὼ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τοῦτον ἦλθον, ἵνα οἱ μὴ βλέποντες βλέπωσιν καὶ οἱ βλέποντες τυφλοὶ γένωνται. 40 ἤκουσα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ταῦτα οἱ μετ' αὐτοῦ ὄντες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μὴ καὶ ἡμεῖς τυφλοί ἐσμεν; 41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εἰ τυφλοὶ ἦτε, οὐκ ἂν εἴχετε ἁμαρτίαν· νῦν δὲ λέγετε ὅτι βλέπομεν, ἡ ἁμαρτία ὑμῶν μένει.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 didymus.kr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한글 본문 (개역개정)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니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18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19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더라

24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26 그들이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니라

35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 것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져 있느니라

핵심 어휘

원어	음역	문법 형태	의미 범위
τυφλός	typhlos 튀플로스	형용사, 남성 단수	눈먼, 맹인의;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
ἐκ γενετῆς	ek genetēs 에크 게네테스	전치사구 (기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
ἥμαρτεν	hēmarten 헤마르텐	동사,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죄를 짓다(ἁμαρτάνω의 과거형) — 인과응보적 질문에 사용
φανερωθῇ	phanerōthē 파네로테	동사,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	드러나다, 나타나다 —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 하나님이 드러내심
ἐργάζεσθαι	ergazesthai 에르가제스타이	동사, 현재 중간태 부정사	일하다, 행하다 — "우리가 일해야 한다"(ἡμᾶς δεῖ)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phōs tou kosmou	명사구, 주격	세상의 빛 — 예수의 자기 선언(8:12 반복)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원어	음역	문법 형태	의미 범위
	포스 투 코스 무		
ἐπέχρισεν	epechrisen 에페크리센	동사,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진흙을) 바르다, 도유하다 — 창세기 2:7 창조 행위 반향
Σιλωάμ	Silōam 실로암	고유명사, 중성	"보냄을 받은 자"(ἀπεσταλμένος) —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원 밝힘
ἀποσυνάγωγος	aposynagōgos 아포쉬나고고스	형용사	회당에서 추방된 — 요한복음에만 3회 (9:22, 12:42, 16:2)
ἓν οἶδα	hen oida 헨 오이다	수사+동사 구문	한 가지 안다 — 법정 수사학적 증언 공식 (Tripp)
προσεκύνησεν	prosekynēsen 프로세퀴네센	동사,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경배하다 — 맹인의 점진적 고백의 클라이맥스

문법적 특징

1. "우리가" vs "나는" (9:4) — 초기 사본에 ἡμᾶς(우리)와 ἐμέ(나)가 혼재합니다. 비평본문(NA28)은 ἡμᾶς를 채택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만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모두의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톰프슨(Thompson)은 이 독법이 "예수의 사역에 제자들을 참여시키는 요한의 신학적 관심"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Thompson, *John*, p. 248).

2. 점진적 고백 구조 (Progressive Christological Confession) — 맹인의 예수에 대한 호칭이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ἄνθρωπος, 11절) → "선지자"(προφήτης, 17절) →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παρὰ θεοῦ, 33절) → "주여"(Κύριε) + 경배(προσεκύνησεν, 38절). 코스텐버거(Köstenberger)는 이 구조를 요한복음 전체의 그리스도론적 계시 패턴의 축소판으로 봅니다 (Köstenberger, *John*, BECNT, pp. 246-255).

3. 역설적 심판 선언 (9:39) — εἰς κρίμα는 3:17("정죄하려 보낸 것이 아니라")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κρίμα는 법적 선고가 아니라 '분리/구별'의 의미입니다. 빛이 오면 자연히 보는 자와 못 보는 자가 나뉩니다. 모리스(Morris)는 "빛의 임재 자체가 사람들을 분별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Morris, *John*, NICNT, p. 484).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 didymus.kr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번역 비교

구절	개역개정	새번역	NIV
9:3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9:4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we must do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9:25	"한 가지 아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One thing I do know"
9:39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주목할 번역 차이: 9:3의 ἵνα절은 맹인의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해석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자"는 당위적 해석 둘 다 가능합니다. 새번역이 수동태 뉘앙스를 더 살렸습니다. 9:39의 κρίμα를 "심판"으로 번역하면 3:17과 충돌하므로, 맥락상 "분별"로 이해해야 합니다.

---

2. 학술 자료

주석서 비교

코스텐버거(Köstenberger, Andreas) — BECNT

코스텐버거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7:1-10:21의 초막절 단원 안에 위치시킵니다. 요 5장의 베데스다 치유와 병행 구조를 이루며, 둘 다 안식일 치유 → 유대인과의 논쟁 → 예수의 자기 계시라는 패턴을 따릅니다. 14절에서 안식일 언급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은 서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요한의 서술 기법입니다.

코스텐버거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위반 논리를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1)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므로 치유를 다음 날로 미뤄야 했다, (2) 침과 흙으로 진흙을 반죽하는 행위가 미쉬나(m. Šabb. 7.2)에서 금지한 39가지 노동 중 '반죽하기'에 해당한다, (3) 후대 유대 전통에서 안식일에 눈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금했다(b. ʿAbod. Zar. 28b). 그러나 코스텐버거는 "예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론적 논쟁이 전개되는 것"이 이 장의 독특한 서사적 장치라고 강조합니다 — 리더보스(Ridderbos)의 표현을 빌려 "예수는 위대한 부재자이자 언급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Köstenberger, *John*, BECNT, pp. 270-286).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모리스(Morris, Leon) — NICNT

모리스는 요한복음 9장의 서두에서 구약과 유대 전통 전체에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뜬"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구약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행위**(출 4:11; 시 146:8)이자 **메시아적 활동**(사 29:18; 35:5; 42:7)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 치유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는 핵심 표적입니다.

9:3의 고통과 죄의 관계에 대해, 모리스는 "어떤 재앙이든 죄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 원칙이었다"며 랍비 암미(R. Ammi)의 격언 "죄 없는 고통은 없고, 죄 없는 죽음은 없다"(b. Shab. 55a)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두 대안을 모두 단호히 거부합니다. 25절의 "한 가지 아는 것은"(ἓν οἶδα)에 대해, 모리스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단순한 경험적 증언이, 신학자들의 이론적 논증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합니다 (Morris, *John*, NICNT, pp. 483-502).

톰프슨(Thompson, Marianne Meye) — Westminster John Knox

톰프슨은 9:1-12의 치유 장면이 "이례적으로 짧고 간결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치유 자체는 7절에서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그 후의 심문과 논쟁이 3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불균형한 구조는 요한이 치유 행위 자체보다 **치유의 의미를 놓고 벌어지는 인식론적 투쟁**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톰프슨은 특히 맹인의 부모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함이러라"(22절)는 대목에서, ἀποσυνάγωγος가 반드시 공식적 파문(ḥērem)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위협이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9:4의 "우리가"(ἡμᾶς) 독법에 대해, 이것이 제자들을 예수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요한의 신학적 의도를 반영한다고 해석합니다 (Thompson, *John*, pp. 205-213).

슈나켄부르크(Schnackenburg, Rudolf)

슈나켄부르크는 9:14에서 안식일이 "뒤늦게" 언급되는 점을 중시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경보음을 울리는 효과"(Borchert의 표현)를 가지며, 그리스도론적 관심이 안식일 논쟁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ἀνέῳξεν(그가 열었다)의 능동태가 "예수를 치유자이자 안식일 위반자로 동시에 부각시킨다"고 분석합니다 (Schnackenburg, *John*, vol. 2, pp. 247-260).

네이레이(Neyrey, Jerome H.) —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네이레이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명예-수치 문화(honor-shame)의 틀**로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심문하는 것은 예수의 명예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며, 맹인의 점진적 고백은 명예 게임에서 예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이레이의 사회과학적 접근은 본문의 권력 역학을 드러냅니다 (Neyrey, *John*, NCBC, pp. 165-175).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학술 논쟁 (쟁점별 정리)

쟁점 1: 진흙과 창조 모티프 — 창세기 2:7 연결이 의도적인가?

프레이어-그릭스(Frayer-Griggs)는 예수가 침과 흙으로 진흙을 만든 행위가 **창세기 2:7의 의도적 반향**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 (1) 이레나이우스가 2세기에 이미 이 연결을 확인했고, (2) 사해문서(4Q521)에도 메시아가 "눈먼 자의 눈을 열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3) 요한복음이 창세기 1:1을 의식하고 시작하므로 창조 모티프가 일관됩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침으로 치유하는 행위가 고대 근동의 일반적 민간요법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모리스와 코스텐버거 모두 창조 모티프를 지지합니다 (Frayer-Griggs, "Spittle, Clay, and Creation in John 9:6", *JBL* 132, pp. 659-670).

쟁점 2: ἀποσυνάγωγος — 역사적 사건인가, 신학적 내러티브인가?

마틴(J.L. Martyn)의 고전적 해석에 따르면, 요한복음 9장은 **비르캇 하-미님**(이단 저주 기도문)으로 인한 그리스도인 회당 추방을 반영합니다. 프라이(Frey)는 비르캇 하-미님의 연대(90년경)와 요한복음 저작 시기의 일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ἀποσυνάγωγος가 반드시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지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코스텐버거는 회당 추방이 반드시 비르캇 하-미님과 연결될 필요 없이 초기 유대-그리스도교 갈등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Frey, "John 9", pp. 1-7; Köstenberger, pp. 286-288).

쟁점 3: 법정 수사학적 배경 — οἶδα의 법정 기능

트립(Tripp)은 9장의 심문 장면들이 **그레코-로만 법정 재판**(forensic trial)의 형식을 따른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οἶδα("나는 안다")가 법정에서의 수사학적 전략으로 기능합니다. 맹인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9:25)은 법정에서의 경험적 증언이며, 바리새인들의 "우리는 안다"(9:24, 29)는 증거 없는 선언입니다. 부모의 "우리는 알지 못한다"(9:21)는 위협 하에서의 증언 회피로 읽힙니다. 트립은 ἀποσυνάγωγος(22절)도 증인 협박 전술로 해석합니다 (Tripp, "Reading John 9 in Greco-Roman Forensic Context", *CBQ*, pp. 470-491).

쟁점 4: 초막절 배경과 빛의 축제

킴(Kim)은 요한복음 9장이 **초막절 축제의 빛의 의식**(Illumination Ceremony)과 **물 붓기 의식**(Water Libation)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8:12에서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빛의 축제 현장에서이며, 9장의 맹인 치유는 이 선언의 물리적 실현입니다. 실로암 못은 물 붓기 의식에서 물을 떠오는 장소입니다 (Kim, "The Significance of Jesus' Healing the Blind Man in John 9", *BSac* 167, pp. 307-318).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교부 해석

이레나이우스(Irenaeus) — 창조 모티프를 최초로 체계화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진흙으로 눈을 만드신다. 이는 같은 창조주가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일하심을 보여준다" (ACCS, Elowsky ed., *John 1-10*, p. 383).

크리소스톰(Chrysostom) — 요한복음 설교(Homily 56-57)에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예수가 '우리가 일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행동하라는 것이다." 또한 예수가 하시는 일은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예수의 신성의 증거라고 역설합니다 (NPNF 1-14, *Homilies on John*, pp. 200-210).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 요한복음 강해(Tractate XLIV)에서 쫓겨난 맹인을 예수가 찾아가시는 행위(35절)를 묵상합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것을 들으시고 찾아가셨다." 이 해석은 종말론적 긴급성을 부여합니다 (NPNF 1-7, *Tractates on John*, pp. 245-252).

에프렘(Ephrem the Syrian) — "먼지에서 빛이 나오게 하셨다"는 독특한 해석.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흙을 통해 빛(시력)을 주셨습니다 (ACCS, p. 387).

오리겐(Origen) — 실로암에서 씻는 행위를 **세례의 예형**으로 해석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곧 그리스도에게서 씻김을 받는 것이 영적 눈뜸의 조건입니다 (ACCS, pp. 388-389).

사전 항목

DJG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 "Signs/Miracles" 항목에서 요한복음의 7표적(σημεῖα)을 분석하며, 9장의 맹인 치유를 "여섯 번째 표적"으로,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위치시킵니다. 또한 "Blindness" 항목에서 1세기 유대 사회의 장애 인식과 죄-질병 연결 사고를 상세히 다룹니다 (DJG, IVP, 2013).

---

3. 역사적·문화적 배경

초막절(장막절) 배경

요한복음 9장은 **초막절 축제의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요 7:2에서 초막절 언급 시작, 10:22까지 이어짐). 초막절의 두 가지 핵심 의식:

1. 물 붓기 의식 (Water Libation Ceremony) — 성전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금 주전자로 물을 떠와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반석이 물을 낸 것을 기념하며, 메시아 시대의 생명수를 기대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가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신 것은 이 의식을 의식한 행위입니다.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2. 빛의 축제 (Illumination Ceremony) — 성전 여인의 뜰에 거대한 촛대를 세우고 밤새 밝혔습니다. 이 빛은 광야의 불기둥을 기념하며, 메시아적 빛의 도래를 상징했습니다. 8:12에서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 축제 현장에서입니다. 9장의 맹인 치유는 이 선언의 **물리적 실현**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의 장애인 인식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천적 장애는 **죄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키너(Keener)는 에녹서 98:5, 욥의 유언 15:9-10 등 제2성전기 문헌을 인용하며, 탈무드(b. Shab. 55a)에서도 "고통 없는 죽음은 없고, 죄 없는 고통은 없다"는 원칙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리스가 지적하듯, 랍비들은 태아가 자궁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고(창 25:22에 근거), 또는 영혼의 선재설(지혜서 8:20)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의 대답 —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 은 **혁명적 전환**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고통의 **목적**을 묻는 질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Morris, pp. 486-487).

실로암 못 — 고고학적 증거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쪽, 다윗성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실로암 수로)을 통해 기혼 샘에서 물이 흘러왔습니다. **2004-2005년 고고학 발굴**에서 실제 1세기 실로암 못이 발견되었으며,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약 50×60m)의 계단식 의례 정결 못(미크베)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실로암의 어원을 밝힙니다: "보냄을 받은 자"(Ἀπεσταλμένος). 코스텐버거는 실로암 못이 베데스다처럼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낸" 곳이기에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 전통적 의례가 아니라 예수와의 만남이 핵심입니다.

안식일 논쟁의 배경

미쉬나(m. Šabb. 7:2)에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노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코스텐버거에 따르면, 예수가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1) 진흙을 반죽하는 행위(kneading), (2) 눈에 도유하는 행위(anointing). 힐렐학파보다 엄격한 샴마이학파가 예수 시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우세했으며,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금했을 것입니다 (Köstenberger, p. 270).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주요 지명

지명	위치	의미
실로암 못	예루살렘 남단, 다윗 성	초막절 물 붓기 의식의 수원지, "보냄을 받은 자"
성전 여인의 뜰	예루살렘 성전 구역	빛의 축제(8:12)가 열린 장소
기혼 샘	기드론 골짜기	히스기야 터널의 수원지
예루살렘	유다 산지	초막절 축제의 중심지, 9장 전체의 배경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	바리새인의 조롱: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7:52)

---

4. 관련 본문 (Cross-references)

병행/인용 본문

- **이사야 35:5** — "그 때에 눈먼 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 메시아 시대의 표지
- **이사야 42:6-7** — "눈먼 자의 눈을 열며" — 여호와의 종의 사명
- **시편 146:8** — "여호와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 **출애굽기 4:11** —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눈 먼 자를 만든 자가 아니냐"

요한복음 내 주제적 연결

- **요 1:4-5, 8-9** — "빛이 어둠에 비치되" → 9장의 핵심 주제
- **요 3:19-21** —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은" → 바리새인의 태도
- **요 5:1-18** — 베데스다 치유 (동일한 안식일 치유 → 논쟁 구조)
- **요 8:12** — "나는 세상의 빛이다" → 9:5에서 반복, 맹인 치유로 실현
- **요 10:1-21** — 양의 문/선한 목자 담화 (9장과 직접 연결)
- **요 11:1-44** — 나사로 살림 (일곱 번째 표적)

주제적 연결

- **막 8:22-26** — 벳새다 맹인 치유 (침 사용, 점진적 치유)
- **행 9:17-18** —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 didymus.kr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 **고후 4:6** —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치사"

---

5. 성화 (Sacred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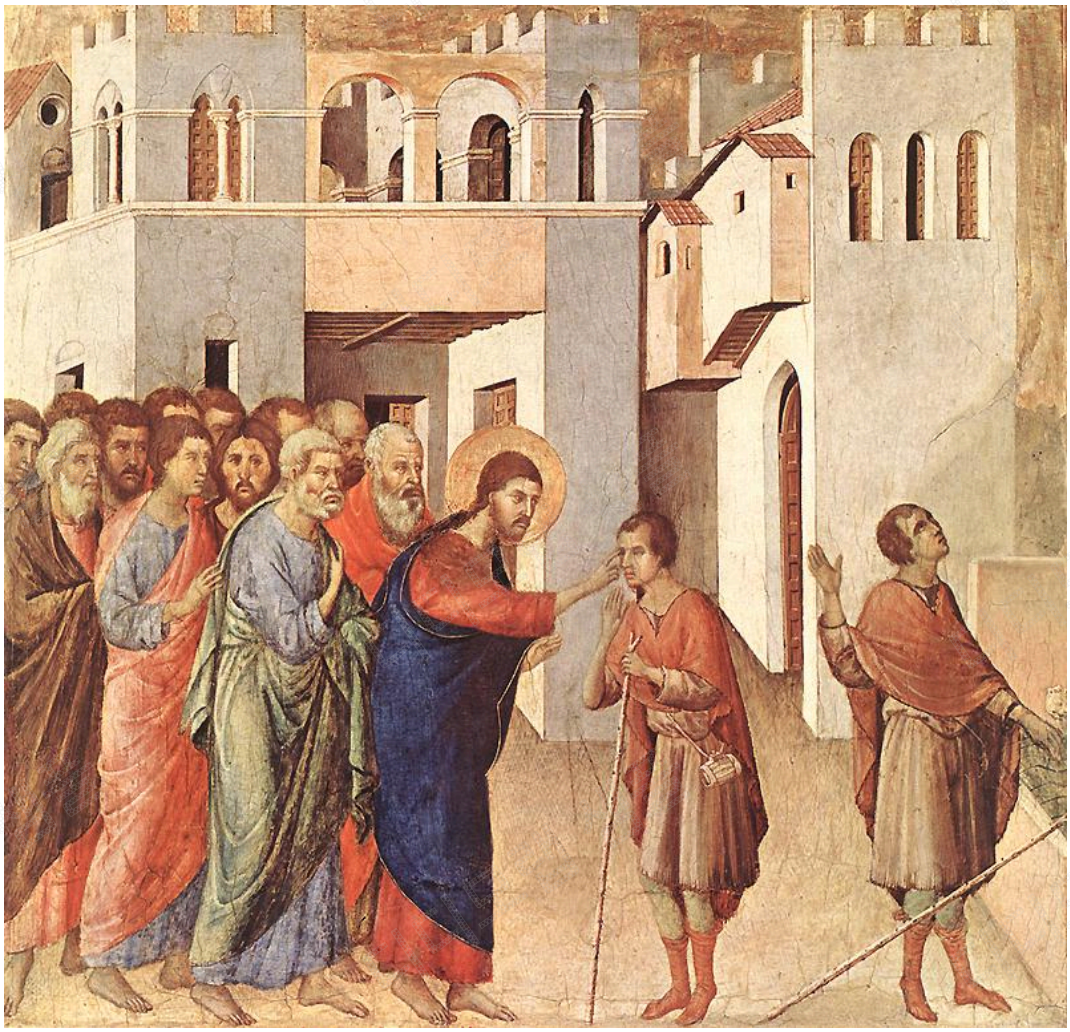
1. 그리스도, 맹인을 고치시다 — 엘 그레코(El Greco) (c.1570)

- **시대/화풍**: 매너리즘 (스페인 르네상스)
- **소장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 뉴욕
- **해석**: 엘 그레코는 치유의 찰나를 포착합니다. 예수의 손이 맹인의 눈에 닿는 순간, 주변 인물들의 경이와 의혹이 뒤섞인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특유의 길게 늘어진 인체와 강렬한 명암 대비가 신적 개입의 초자연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화면 좌측의 어두운 영역에서 우측의 밝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구도는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본문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 **설교 활용**: "엘 그레코의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이 맹인의 눈에 닿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2. 맹인의 치유 — 두초 디 부오닌세냐(Duccio di Buoninsegna) (1307-1311)



- **시대/화풍**: 고딕 / 초기 이탈리아 회화
- **소장처**: 내셔널 갤러리, 런던
- **해석**: 시에나 대성당 마에스타 제단화의 일부입니다. 두초는 같은 화면에 치유의 전후를 동시에 배치하는 "연속 서사" 기법을 사용합니다. 좌측에서 예수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우측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새로운 시력으로 세상을 봅니다. 금색 배경은 이 사건이 신성한 영역의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 **설교 활용**: "중세 화가 두초는 한 화면에 '전'과 '후'를 동시에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전'과 '후'를 바꾸십니다."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3. 그리스도, 맹인을 고치시다 — 필리프 드 샹파뉴(Philippe de Champaigne) (c.1650)

- **시대/화풍**: 바로크 (프랑스 고전주의)
- **소장처**: 팀켄 미술관, 샌디에이고
- **해석**: 얀세니즘의 영향을 받은 샹파뉴는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맹인은 완전히 수동적이며, 치유의 모든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색채가 사건의 신학적 깊이를 전달합니다.
- **설교 활용**: "이 그림에서 맹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4. 맹인의 치유 — 렘브란트 반 레인(Rembrandt van Rijn) (c.1655)

- **시대/화풍**: 바로크 (네덜란드 황금시대)
- **소장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 **해석**: 렘브란트는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 기법으로 어둠 속에서 빛이 터져 나오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예수의 손에서 맹인의 얼굴로 빛이 흘러가는 구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9:5의 선언을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주변 군중의 반응이 다양하게 묘사된 것은 9:16의 바리새인들 사이의 분열을 반영합니다.
- **설교 활용**: "렘브란트는 어둠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어둠 속의 빛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 didymus.kr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6. 예화

단락 1: 고통의 원인에서 목적으로 (1-7절)

>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예화 1-1. 판사에서 목회자로 — 대구의 한 장로님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판사로 있는 동안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판사 복을 벗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해도 인간의 판단은 오류를 범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라고 물은 것도 같은 오류입니다 —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원인을 단정짓는 인간의 한계.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뒤집으셨습니다. → **본문 연결**: 9:2-3의 인과응보적 질문을 거부하시는 예수님 —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 **출처**: 김삼환 목사, 요9:17-27

예화 1-2. 순천의 나병 환자를 돌보는 청년 한경직 목사는 순천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병 환자도 아닌 그 청년이 근방의 나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을 설립하고, 사방으로 다니며 애쓰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고통을 보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묻지 않고 고통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 **본문 연결**: 9:3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사람 → **출처**: 한경직 목사, 요9:1-12

예화 1-3. 김상봉 교수의 희망 선언 방송사에서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상봉을 초대해 대담을 진행한 후, 사회자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주저 없이 "왜냐하면 내가 희망이니까요. 내 속에 빛이 꺼지지 않으면 어둠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라고 답했습니다. 9:5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전 사용: 2026-04-06) → **본문 연결**: 9:4-5 "낮에 일해야 한다" — 빛이 있는 동안의 긴급성 → **출처**: 방송 인터뷰, 김상봉 교수

단락 2: 심문과 추방 — 신앙의 대가 (13-34절)

>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25절)*

예화 2-1. 디오게네스의 등불 고대 헬라 나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켜서 들고 다녔습니다.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들은 대낮에 환한 빛(예수의 표적)을 보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16절)라고 합니다. 디오게네스처럼 등불을 들고 진실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이, 눈앞에 빛 자체가 서 계신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사용: 2026-04-06) → **본문 연결**: 9:16 바리새인의 분쟁 — 눈앞의 빛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 맹목 → **출처**: 요9:13-25

예화 2-2.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 빵 공장의 비극 김재홍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쉽게 욕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한 인물 중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빵 만드는 공장에서는 거의 한 해에 한 명씩 노동자가 빵을 만들다 죽고 있습니다. 사측은 매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규칙을, 생명보다 체계를 우선시하는 것 — 이것이 바리새인의 본질이며, 우리 안의 바리새인입니다. → **본문 연결**: 9:16, 34 — 안식일 규정을 생명의 치유보다 우선시한 바리새인 → **출처**: 김재홍 목사, 요9:1-7

예화 2-3. 눈먼 판사와 억울한 지서장 김삼환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면의 지서장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5년을 보낸 후 진범이 잡혀 나왔습니다. "그렇게 검사하고 검사해도 이 세상에는 빠삐용 같은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너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24절)이라 단정하고, 치유받은 맹인을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34절)고 정죄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 **본문 연결**: 9:24, 34 — 증거를 무시하고 선입견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 → **출처**: 김삼환 목사, 요9:17-27

단락 3: 경배 — "주여, 내가 믿나이다" (35-41절)

>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화 3-1. 되돌아온 소경 — 은혜 후의 결단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열 명의 나환자가 나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듯이, 이 사람도 밝아진 눈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돌아왔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 **본문 연결**: 9:35-38 — 쫓겨난 맹인이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장면. 돌아옴의 신학 → **출처**: 요9:1-7

예화 3-2. 수렁에 빠진 사람과 예수님의 손 어떤 사람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지나가며 "인간은 저런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도덕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석가모니는 "전생의 업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뜻이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여, 내 손을 붙잡으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9장에서 바리새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
디디모랩 샘플 자료 | didymus.kr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샘플 자료 didymus.kr

인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규칙을 따지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 **본문 연결**: 9:6-7, 35 — 진단이 아닌 행동으로, 정죄가 아닌 만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 **출처**: 요9:1-12

예화 3-3. 김익두 목사의 부고장 한국 초대교회의 김익두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행패를 부려 사람들이 성황당에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빌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 아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은 정말 죽은 줄 알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맹인이 "주여"라고 고백하고 경배한 순간, 그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 **본문 연결**: 9:38 "주여 내가 믿나이다" —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 → **출처**: 롬7:18-25

didymus.kr · 샘플 · 무단 배포 금지 디디모랩 Didymus Lab